Think Aloud Task 사용자 경험 분석 보고서

GCS 6기

202234940 소프트웨어 전공 최연정

1. 개요

해당 보고서는 Think Aloud Task 방법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하려고 한다.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피실험자는 온라인 패션 쇼핑 플랫폼 "무신사"와 "지그재그"에서 "단정한 검은색 슈트 세트를 10만 원 이내로 구매하는 과정"을 수행한다. 실험자는 이 과정을 통해 각 UX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사용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UX의 개선 방향을 제공한다. 궁극적으로 Think Aloud Task를 통해 좋은 UX가 무엇인지고민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.

2. 피실험자의 특징 및 수행 과정

A. 피실험자의 특징

피실험자는 무신사와 지그재그를 모두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실험에 있어서 앱 사용에 익숙함으로 인해 생기는 변수를 제외할 수 있었다.

B. 수행 과정

- i. "무신사"에 들어간다.
- ii. 카테고리를 선택한다.
- iii. 색상에서 검은색을 선택한다.
- iv. 상세 옵션에서 세트 선택지를 찾는다.
- v. 핏을 골라 단정한 선택지를 찾는다.
- vi. 10만 원 이하로 가격을 선택한다.
- vii. 나온 상품을 보면서 단정한 상하의 세트를 찾는다.
- viii.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옷의 상세 설명을 확인한다.
 - ix.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구매하기 버튼을 누른다.
 - x. 위 과정을 "지그재그"에서 반복한다.

3. 사용자 경험 분석

	무신사	지그재그	비교 분석
시	3분 50초	5분 5초	무신사가 더 짧은 시간 내에 원하
간			는 과정을 이룸
카	아우터 카테고리	투피스/세트 카테	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편리
테		고리	한 UX는 무신사, 앱에 익숙해진
고			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상

리			품을 찾기 좋은 UX는 지그재그
색	52개의 색상 제공,	20개의 색상 제공,	구체적인 색상을 원하면 무신사,
상	복수 선택 가능	복수 선택 가능, 색	트렌드를 알고 싶으면 지그재그
		상별 상품 개수 표	
		시	
가	일정 범위의 선택	슬라이드 바를 활	지그재그는 세밀한 조작이 필요
격	지 또는 정확한 숫	용한 가격 선택	해 불편함이 발생함
	자 직접 입력		

위 표에 무신사와 지그재그의 대표적인 UX 차이를 정리했다. 무신사보다 지그재그에서 더 세밀한 카테고리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그재그에서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. 지그재그의 경우 투피스/세트 카테고리를 따로 마련했다. 추가로 스커트 세트, 팬츠 세트 등 세밀하게 분류했다. 이런 UX의 차이에서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무신사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기 쉬웠으나, 더 세밀한 카테고리에 익숙해질 경우 지그재그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기 쉬울 것으로 추정된다.

색상에서는 무신사가 더 깔끔하고 세밀한 구분이 있었으나, 지그재그에서는 색상별 상품 개수를 표시해 색상별 상품의 많고 적음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.

사용자가 가장 큰 불편함을 느낀 UX는 지그재그의 가격 설정 UX이다. 10만 원이라는 정확한 가격대를 선택하기 위해 슬라이드를 여러 번 조정해야 했다.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실험 도중 직접적으로 불편하다고 언급했다.

4. 개선 방안

Think Aloud Task를 통해 무신사와 지그재그 UX 차이를 분석한 결과, 무신사가 첫 사용자가 더 빠르게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유리한 UX를 제공했고, 지그재그는 세밀한 분류를 통해 지그재그 사용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UX를 제공했다. 앱의 컨셉이나 UI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차이가 존재하지만, 지그재그의 가격 설정 부분에 서는 사용자가 과제 수행 도중 직접 불편하다고 얘기했고, 가장 긴 시간을 소비하는 과정이었다. 따라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무신사의 UX를 참고해보자면, 지그재그의 경우 무신사보다 가격대가 낮으므로 옵션을 선택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가격대를 입력하는 UX가 더 나은 개선 방안일 것으로 추측된다.

5. 결론

개요에서 언급했듯, 이 과정을 통해 좋은 UX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앱의 컨셉과 UI 디자인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고 직관적인 진행을 유도하는 UX 가 필요하다고 느꼈다. 특히 지그재그의 카테고리 부분에서 세밀한 구분도 좋지만, 사용자가 예상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다. 따라서 좋은 UX는 대중적인 사용자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겠다.